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와 사회불안의 관계: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김 은 정 이 혜 란[‡]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심리인지치료학과

본 연구는 대학생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불안, 자기분화의 관계를 밝히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불안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불안과의 각각의 관계에서 자기분화가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생 480명을 대상으로 연구 대상자가 스스로 주 양육자를 선택하게 하여 주 양육자의 양육태도를 부모의 양육태도로 개념화하고, 부모 양육태도, 사회불안, 자기분화 수준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사회불안과 부적, 자기분화와의 정적으로 상관을 보인 반면, 부모의 거부적,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사회불안과 정적으로, 자기분화와는 부적적으로 상관이 유의하였다. 자기분화는 사회불안과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Baron과 Kenny의 검증 방식에 따라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모 양육태도(애정, 거부, 과보호)와 사회불안(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불안)의 각각의 관계 모두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추가분석으로 실시한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통하여 자기분화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단절이 사회불안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가 가장 높은 변인임을 알 수 있었고 정서적 단절을 가장 잘 설명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거부적 양육태도임을 밝혔다.

주요어: 부모 양육태도, 사회불안,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불안, 자기분화

[†] 본 연구는 김은정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 정리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혜란, (1312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가천대학교 특수 치료 대학원 심리 인지 치료학과, Tel: 031-750-4786, Email: janette@gachon.ac.kr

사회불안은 사회적 상황에 대한 회피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 상황에서의 불편함(Clark & Arkowitz, 1975)으로서, 실제적인 혹은 상상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가 존재하거나 예상될 때 그 결과로 인하여 생기는 불안(Schlanker & Leary, 1982)이라고 정의된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대입 전까지 학교, 학원, 가정 등의 제한된 환경과 제한된 대인관계만을 유지했을 가능성이 크고, 대학에서 만나게 되는 새로운 대인관계 형태와 토론이나 발표 위주의 학업 수행 등을 갑자기 경험하게 되어 사회불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김민선, 서영석, 2009). 또한 오늘날 대학생은 낮은 취업률이라는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대학진학 이후에도 자신의 미래를 진중하게 고민하기 보다는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와 학점관리, 시험점수 등의 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있어서 수행의 평가에 대한 불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듯 다른 불안과는 다르게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평가와 사회적 수행에 집중되는 사회불안(APA, 2015/2013)은 오늘날 대학생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이지만, 일반인들에게도 매우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증상 중의 하나로(Schneier, Johnson, Hornig, Liebowitz, & Weissman, 1992) 여전히 정신건강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소홀하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Nagata, Suzuki, & Teo, 2015). 그러나 사회불안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불안과 좌절로 인하여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불안이 예측되는 상황을 회피하려는 증상을 보이게 된다(이경은, 하은혜, 2011). 또한 등교거부 (Last, Hersen, Kazdin, Orvaschel, & Perrin, 1991), 학교 부적응,

약물남용(Essau & Conradt, 1999), 또래관계의 어려움(문혜신, 2001; La Greca & Stone, 1993; Vernberg, Abwender, Ewell, & Beery, 1992) 등에 노출되며, 요구되는 사회적 행동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여(DePaulo, Epstein, & LeMay, 1990; Stopa & Clark, 1993; Wallace & Alden, 1995), 대인관계, 학업 수행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다(허재홍, 2006).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심리적 고통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치료기관을 방문하기보다 회피행동을 선택하여 오히려 증상을 만성화 시키고(김두현, 2015) 증상을 평생 지속시킬 수 있어서(Bruce et al., 2005), 사회불안은 치료적 개입이 매우 중요한 불안장애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한편 DSM-5에서는 사회불안장애의 세부진단에서 두려움이 대중 앞에서 말하거나 수행하는 것에 국한되는 ‘수행형 단독(performance only)’불안을 따로 분리(APA, 2015/2013)하고 있고, 수행불안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이 오버랩 되기도 하지만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들(박선영, 2003; 신헤린, 2012; Hook, Valentiner, & Connelly, 2013)이 보고되고 있어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불안을 분리하여 검증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은 일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주로 대화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상대의 반응에 따라 자신이 또 영향을 받는 양 방향적 불안(허재홍, 2005)으로 상호작용시에 나타나는 반면, 수행불안은 발표상황, 청중이 있는 상황, 낯선 상황으로의 입장 등 자신이 일방적으로 타인에게 주시 받거나 평가받는 입장으로 여겨질 경우에 나타나는 불안(Liebowitz, 1987)으

로 구분되어진다.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인관계 차원에서 수줍음을 많이 느끼고, 사교성이 부족하며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유형이 수행불안 유형에 비하여 더 내성적인 성격적 특성을 나타내고 스스로 사교성이 부족하다고 더 높게 지각하였다(박선영, 2003). 한편 수행불안을 보이는 집단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보이는 집단에 비해 완벽주의 성향이 더 강했으며 문제회피와 관련하여 더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신혜린, 2012), 이들은 평가에 대한 인지적 왜곡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수행이 실망스러울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경향이 높고(Alden, Taylor, Mellings, & Lapos, 2008), 수줍음이나 행동 억제와 같은 성격특성과는 연관성이 낮았지만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심박률 등의 신체적 반응과는 더 높은 관련을 보였다(Heimberg & Holt, 1993). 두 불안 각각을 예측하는 관련 변인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성격 취약성 중 부 적응적 자기초점주의는 수행불안에, 사회지향성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더 강한 영향을 미쳤으며(조나영, 2014), 긍정적 결과에 대한 가치절하 성향은 수행불안과 더 높은 관련을 보였다(한상연, 2015). 자기평가는 수행불안에만 영향을 미친다(Hook 외, 2013)는 연구도 있다. 물론 두 불안 유형이 가지는 공통적인 속성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은 기질적 영향이나 환경의 영향으로 보다 조기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비 일반적인 수행불안 등은 경험하였던 외상의 영향으로 16세 정도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Nagata 외, 2015)는 언급도 있어서 두 불안 유형을 분리하여 검증하는 것은

치료적 개입에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리라 여겨진다.

선행 연구에서 가족 환경의 대표요소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애정, 수용 등과 관련된 긍정적 양육태도는 사회불안을 낮추는 효과(강지혜, 2011; 김무경, 오윤희, 오강섭, 2005; 김유정, 2015; 김혜민, 2008; 윤은주, 2012; Bruch, Heimberg, Berger, & Collins, 1989)를 보였고,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의 부모는 자녀를 과잉보호하는 경향이 높다(장효주, 2009; Arindell et al., 1989; Bruch et al., 1989)고 밝혀졌다. 한편 대부분의 연구들이 부모의 애정과 과보호적 양육태도에 치중하여 사회불안을 다루어 온 경향이 있는데 부모의 학대나 방치 등의 보다 적극적인 부정적 양육태도 또한 사회불안의 예측 인자로 나타나(김무경 외, 2005), 거부적 양육태도를 추가적으로 제시해 볼 근거를 제공한다. 사회 불안증을 가진 성인들은 그들의 부모 모두가 거부적인 태도로 자신들을 양육했다고 기억하고 있었고(Arindell, Emmelkamp, Monsma, & Brillman, 1983), 부모의 양육태도를 거부적으로 지각하는 자녀는 대인관계 스트레스,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불안 모두가 높았다(서경현, 신현진, 양승애, 2013). 더불어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불안이 다르게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들을 보면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수행불안에만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이정은, 하은혜, 2011)는 연구도 있고, 부모의 과잉 간섭은 여자 청소년에게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보다 수행불안과 더 높은 상관을 보이고, 남자 청

소년에게는 어떠한 불안 유형과도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서경현, 2012)는 결과도 있다. 김유정(2015)은 부, 모의 각 양육태도가 대체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보다 수행불안과 상관이 높았다고 하였는데, 윤은주(2012)는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대학생의 사회적 회피경향과,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만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고 보고한다.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불안의 차별적 특성이 밝혀지고 있으나 두 불안 유형 각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고 그 결과들 또한 일관적이지 않아서 지속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한편으로 매개변인을 통해서만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학생 자녀의 사회불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에서는 행동억제 기질, 외상(오경자, 양윤란, 2003; 허재홍, 2005b), 역기능적 신념과 정서조절 곤란(최미미, 조용래, 2008), 완벽주의(허재홍, 2006)등을 매개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성장한 자녀의 사회불안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로 인하여 중재 된다는 의미로 다양한 매개요인에 대한 주시를 요구하였다. 사회불안은 기질적, 인지적, 정서적, 환경적인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이경은, 하은혜, 2011; APA, 2015/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이라는 환경적 요인에 더하여 인지와 감정을 동시에 중시하는(Friedman, 1991) ‘정서적 기능과 지적 기능’, ‘친밀감과 독립성’ 각각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정도(Skowron & Friedlander, 1998)로 개인내적 차원(정서적 반응, 자기입장)과 타인관계적 차원(정서적 단절, 타인융합)을 아우르는 다 차원적 개념인 자기분화(Kerr

& Bowen, 1988)를 매개변인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자기분화란 자신의 감정을 이성적으로 다스리면서 의미 있는 타인과 정서적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Bowen, 1982), 불안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Kerr & Bowen, 1988)이다. 자기분화는 개인의 건강한 발달과 바람직한 사회관계 형성에 선행요인으로 작용하여 (Bowen, 1976), 자기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객관적인 사고가 분명하여 의존적이지 않고 자유로우며 현실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타인과 상호 도움이 되는 성숙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김정택, 심혜숙, 1993). 반면 자기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은 주변인들의 감정과 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한 경향을 보여서 역기능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윤선미, 2010; Archer & Waterman, 1988) 융통성이 없어서 환경에 의해 쉽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관계에 적응적이지 못하여(박희룡, 2015), 불안과 우울에 노출되기 쉽다(강경훈, 2009; 윤향숙, 황윤미, 김덕범, 장성화, 2011).

가족으로부터의 분리가 주요 과제인 자기분화 수준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다. 애정적 양육 환경에서 성장한 자녀의 자기분화 수준은 적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환경에서 성장한 자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홍원표, 2013)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대학생 자녀의 건강한 분화와 독립에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김진영, 2011) 보고되었다. 한편 자기분화와 사회불안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고 더구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불안 각각에 대한 영향을 함께 밝힌 연구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자기분화를 제대로 이루지 못한 자녀는 대인 예민성, 불안, 적대감이 높고(이은희, 2011),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높고(나보영, 2008),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이서정, 2013) 대인간의 상호작용 사이에서 빚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노출되기 쉬워질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자기분화가 잘 이루어진 대학생은 대학생활에서의 적응 수준이 높고(윤향숙 외, 2011),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우며(김정택, 심혜숙, 1993),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의 신호로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에 노출될 위험이 낮아져서(Peleg-Popko, 2002) 대학생활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수행에 있어서의 두려움에 대한 대처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한편으로 Peleg-Popko(2002)는 자기분화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회피정도 보다 낮은 상황이나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정도와 더 높은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고, 이후 타인에게 지나치게 융합되거나 정서적 단절의 경향이 높아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학생일수록 시험(test)불안이 높다고 밝혔다(Peleg, Deutch, & Dan, 2016). 한국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은 내향적인 성격에 의하여 유발되고(윤성민, 신희천, 2007), 수행불안은 사회상황에서 자신의 불안증상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인식하기 때문에 유발되는 것으로 보여진다(김향숙, 2001)고 예측하였다. 종합해보면 자기분화가 개인내적 차원과 타인 관계적 차원을 동시에 아우르고 있지만 성격, 기질에 의해 발현되기 쉬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보다는 자신이 평가받는 위치, 낮은 환경에서 주시 받는 입장에서의 두려움으로 상징되

는 수행불안과 더 깊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가정하게 한다. 더불어 선행 연구에서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는 자기분화의 하위요인별 차별적 영향이 드러나고 있는데, 청소년의 우울에는 자기분화 하위 요인 중 개인 내적 요인인 인지-정서(김상욱, 2010), 학교 부적응에는 가족 투사 과정(강정현, 2012), 대학생의 문제 해결력 유형에는 가족퇴행(김희숙, 2012),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타인관계 차원의 정서적 단절(우수희, 송근혜, 조규관, 2012)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대학생의 사회적 회피 성향에는 개인내적 차원인 정서적 반응이, 사회불안에는 타인과의 관계 차원의 타인융합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eleg-Popko, 2002).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불안에도 특별히 기여도가 높은 자기분화의 하위요인을 파악해 본다면 증상의 완화를 위한 보다 효율적인 개인 상담이나 부모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없다. 일반적으로 대학생은 거의 성인으로 여겨져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에 비하여 활발하지 않고 양육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는 주로 인지적, 기질적 요인 등을 매개 변인으로 상정한 연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부모와의 동거 증가, 취업준비기간 연장 등으로 ‘성인 진입기’라는 새로운 발달 단계에 위치해 있는 대학생(Arnett, 2001)은 여전히 부모의 양육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으로부터의 독립과정인 자기분화를 매개로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자녀의 사회

불안 완화를 위한 좋은 정보가 되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그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자기분화, 사회불안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 지각되는 부모 양육태도가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동시에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불안에 대한 자기분화의 하위요인별 상대적 기여도를 추가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상의 목적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문제와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양육태도, 사회불안, 자기분화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불안 각각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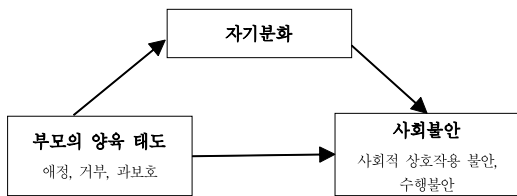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방 법

조사 방법 및 참여자

본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하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조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응답자들이 온라인 조사를 통한 설문조사에서 질문에 더 정확히 답변한다는 연구결과(배성민, 2012)도 존재한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만이 응답을 할 수 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20대의 인터넷 이용률은 99.9%로 보고되어(한국인터넷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 2016)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다. 표본 수집은 2016년 3월 한 달 동안 이루어 졌으며, 전문 설문 수집 기관에게 300개의 표본 수집을 의뢰하고 동시에 서울, 경기, 전라도에 소재한 4개 대학교의 인문학부와 자연학부에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여 해당학과 조교들이 학교 페이스북이나 학과 사이트에 설문을 게시하여 220부를 수집하여 총 520부의 응답이 모아졌다. 응답을 하지 않으면 다음 설문으로 넘어가지 않는 온라인 설문의 특성상 결손은 없었으나, 설문작성 소요시간이 5분 이내로 지나치게 짧았거나 문항의 응답 번호가 일관되지 않은 경우 등을 불성실한 응답으로 간주하여 총 40부의 설문을 연구에서 제외시켰다. 설문자료 총 520부 중 40부를 제외한 나머지 설문 총 480부를 최종연구에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남학생 237명(49.4%), 여학생 243명(50.6%)으로 남녀 대학생이 거의 유사한 비율을 보였으며, 서울, 경기(301명, 62.7%), 전라도(32명, 6.7%), 충청도(31명, 6.5%), 경상도(19명, 4%), 강원도(14명, 2.9%), 제주도(1명, 0.2%), 기타(82명, 17.1%) 지역의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은 인문사회 과학부(183명, 38.1%), 공과대학(163명, 34%), 자연과학(41명, 8.5%), 예체능대학(34명, 7.1%), 의과대학(17명, 3.5%), 기타 전공 42명(8.8%) 으로, 1학년(158명, 32.9%), 4학년(114명, 23.8%), 2학년(107명, 22.3%), 3학년(101명, 21%)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로 개념화한 주 양육자의 양육태

도 평가를 위해 주 양육자를 확인하는 문항에서, 연구 대상자가 지각하는 주 양육자는 어머니(348명, 72.5%)가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으로 아버지(109명, 22.7%), 조부모(9명, 1.9%)였으며 기타 응답자 14명(2.9%) 중 12명은 부모님 모두, 2명은 친척이라고 응답하였다.

측정도구

부모의 양육 태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스웨덴에서 Arindell과 Engebretsen(2000)가 제작한 스웨덴 원어로 ‘Egna Minnen Beträffande Uppfostran (EMBU), 양육에 대한 나의 기억척도’의 단축형인 ‘EMBU-short’를 조한익(201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축소형 EMBU 척도는 총 23문항, 3가지 하위요인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수용적이고 헌신적이며 자녀와 함께 시간을 자주 보내고 대화와 칭찬을 자주하고 자녀의 기분을 잘 헤아려 주었던 것으로 지각 되는 ‘애정적 양육 태도’ 8문항, 부모가 자녀에게 관대하지 못하고 냉담, 무시, 행동적, 심리적 체벌을 했던 것으로 지각되는 ‘거부적 양육태도’ 7문항,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하게 통제, 제약, 간섭하면서 의존심을 부추긴 것으로 지각되는 ‘과보호적 양육태도’ 8문항으로 구성 되어있다. Likert 의 4점 척도로서 ‘거의 드물게’ 1점에서 ‘대부분’의 4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있고 각 하위척도별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애정수준이 높음, 거부수준이 높음, 과보호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 는 애정적 부모 양육 태도 .89, 거부적 부모 양육태도 .82, 과보호적 부

모 양육태도 .77로 나타났다.

사회불안.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사회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Mattick과 Clarke(1998)이 개발하고 김향숙(2001)이 번안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척도(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와 사회 공포 척도(Social Phobia Scale; SPS)를 사용 하였다. 두 척도는 함께 실시하도록 구성된 쌍 척도로, 대인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겪는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 20문항과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상황, 대중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 관심의 초점이 되는 상황 등에서 무언가를 수행할 때 느끼는 두려움인 수행불안의 정도를 측정하는 ‘사회 공포’ 척도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의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94, 수행불안 .94 로 나타났다.

자기분화.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기분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Skowron과 Schmitt (2003)이 재개정한 자기분화 척도 개정판(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Revised; DSI-R)을 김영일(2006)이 번안하고, 박성은(2015)이 번역이 어색한 10개의 문항을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분화 개정판 척도는 총 46문항, 4가지 하위 요인으로, 환경이나 상황 또는 타인으로 부터 자극을 받았을 때 이성보다 감정에 의해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행동하는 정도인 ‘정서적 반응’ 11문항, 자신에 대한

생각이 명확히 정리되어 타인이나 상황의 압력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정도인 ‘자기입장’ 11문항, 친밀한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깊은 관계를 피하고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하는 정도인 ‘정서적 단절’ 12문항, 타인의 정서적 반응에 지나치게 몰입되어 자신의 의견, 의사 결정, 갈등 처리 방식 등이 타인의 영향을 받는 정도인 ‘타인융합’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의 6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6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있고 자기분화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분화가 잘 되어있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정서적 반응 .85, 자기입장 .73, 정서적 단절 .81, 타인융합 .76 으로 나타났다.

분석 절차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SPSS 22.0 for windows를 사용하였다. 우선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불안, 자기분화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값을 구하고, 각 변인의 전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 통계를 통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다음으로 Pearson 상관 분석을 통해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부모의 양육 태도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분화가 매개하는가를 살펴 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방식에 따라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방식에 따르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2단계 에서 독립변인은 매개변인에 유

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3단계에서 독립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마지막 4단계에서 매개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4단계가 모두 성립하면 완전매개(Full mediation)로 간주하고, 1-3 단계가 성립하면서 4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유의하지만 1단계에 비하여 감소하면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로 간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의 두 유형(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불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에 대한 매개효과를 분리하여 검증하였다. 따라서 매개효과 확인 경로를 ¹⁾애정적 양육태도→ 자기분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²⁾애정적 양육태도→ 자기분화→ 수행불안, ³⁾거부적 양육태도→ 자기분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⁴⁾거부적 양육태도→ 자기분화→ 수행불안, ⁵⁾과보호적 양육태도→ 자기분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⁶⁾과보호적 양육태도→ 자기분화→ 수행불안, 총 여섯 가지로 설정하고 각각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매개 효과의 유의성은 Bootstrapping 기법을 적용하여 확인 하였는데, Bootstrapping 기법은 표본크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수 통계기법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Sobel 검증 등의 기존의 매개효과 검증법과 달리 추리통계의 제약조건인 정상분포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 매개효과 검증에 보다 타당하다(Preacher & Hayes, 2004). Bootstrapping 기법은 Hayes(n.d)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SPSS INDIRECT macro를 인출하여 사용 하였다. 마지막으로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취합해 보고자 추가 분석으로 매개변인인 자기분화에 상대적 기여도가 높은 양육태도 변인과 사회적 상

호작용 불안, 수행불안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분화 하위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을 확인해 보았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의 기여도에 따라 가장 높은 기여도의 변수가 투입되고 단계별로 검토되어 제거되는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부모의 양육 태도, 사회불안 및 자기분화의 상관관계

부모의 애정적, 거부적,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사회불안 전체, 자기분화 전체와의 각각의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애정적 양육태도

는 사회불안, $r = -.32, p < .01$, 과는 부적으로, 자기분화, $r = .23, p < .01$, 와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거부적 양육태도는 사회불안, $r = .26, p < .01$, 과는 정적으로, 자기분화, $r = -.24, p < .01$, 와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사회불안, $r = .19, p < .01$, 은 정적으로, 자기분화, $r = -.26, p < .01$, 와는 부적으로 상관이 유의하였다. 이는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으로 지각할 때 자녀의 사회불안 수준은 낮은 반면 자기분화 수준은 높고,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거부적이거나 과보호적으로 지각할 때 자녀의 사회불안 수준은 높지만 자기분화 수준은 낮음을 의미한다. 한편 자기분화와 사회불안, $r = -.73, p < .01$, 은 부적인

표 1. 부모 양육 태도, 사회불안, 자기분화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 편차.

(N=480)

변인	양육태도			사회불안			자기분화				
	애정	거부	과보호	상호 작용	수행	사회 불안 전체	정서적 반응	자기 입장	정서적 단절	타인 융합	자기 분화 전체
양육 태도	애정	1									
	거부	-.429**	1								
	과보호	-.063	.531**	1							
사회 불안	상호 작용	-.326**	.203**	.159**	1						
	수행	-.285**	.282**	.207**	.716**	1					
	사회불안 전체	-.329**	.263**	.198**	.921**	.931**	1				
자기 분화	정서적 반응	.134**	-.181**	-.227**	-.504**	-.522**	-.554**	1			
	자기 입장	.320**	-.040	.031	-.311**	-.307**	-.334**	.189**	1		
	정서적 단절	.280**	-.348**	-.301**	-.617**	-.641**	-.679**	.544**	.087	1	
	타인 융합	-.026	-.112*	-.237**	-.459**	-.530**	-.535**	.724**	.159**	.456**	1
자기분화 전체	.234**	-.245**	-.266**	-.658**	-.696**	-.731**	.869**	.439**	.749**	.820**	1
M	2.67	1.44	1.95	2.82	2.39	2.60	3.23	3.72	4.04	3.42	3.61
SD	0.71	0.50	0.55	0.71	0.76	0.68	0.81	0.62	0.74	0.68	0.52

* $p < .05$, ** $p < .01$.

상관관계를 보여 자기분화가 잘 이루어졌을 때 사회불안에 덜 노출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애정적 양육태도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애정적 양육태도가 종속변인인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β

$= -.33, p < .001$, 수행불안, $\beta = -.28, p < .001$, 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하였고, 2단계에서 애정적 양육태도가 매개변인인 자기분화에 미치는 영향, $\beta = .23, p < .001$, 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3, 4단계에서 독립변인으로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기분화를 동시에 투입한 결과, 애정적 양육태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자기분화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beta = -.83, p < .001$, 수행불안, $\beta = -.97, p < .001$,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자기분화를 통제한 상태에서 애정적 양육태도가 사회적

표 2.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N=480)

검증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t	P	R^2
1단계	애정양육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0.33	-7.53***	0.00	0.11
2단계	애정양육	자기분화	0.23	5.27***	0.00	0.06
3,4단계	자기분화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0.83	-17.83***	0.00	0.46
	애정양육		-0.18	-5.26***	0.00	
1단계	애정양육	수행불안	-0.28	-6.50***	0.00	0.08
2단계	애정양육	자기분화	0.23	5.27***	0.00	0.06
3,4단계	자기분화	수행불안	-0.97	-20.01***	0.00	0.50
	애정양육		-0.13	-3.87***	0.00	
1단계	거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0.20	4.54***	0.00	0.04
2단계	거부	자기분화	-0.24	-5.52***	0.00	0.06
3,4단계	자기분화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0.88	-18.10***	0.00	0.43
	거부		0.06	1.27	0.20	
1단계	거부	수행불안	0.28	6.42***	0.00	0.08
2단계	거부	자기분화	-0.24	-5.52***	0.00	0.06
3,4단계	자기분화	수행불안	-0.96	-19.94***	0.00	0.50
	거부		0.18	3.55***	0.00	
1단계	과보호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0.16	3.51***	0.00	0.03
2단계	과보호	자기분화	-0.27	-6.04***	0.00	0.07
3,4단계	자기분화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0.90	-18.51***	0.00	0.43
	과보호		-0.02	-0.50	0.61	
1단계	과보호	수행불안	0.21	4.62***	0.00	0.04
2단계	과보호	자기분화	-0.27	-6.04***	0.00	0.07
3,4단계	자기분화	수행불안	-1.00	-20.25***	0.00	0.49
	과보호		0.03	0.66	0.51	

* $p < .05$, ** $p < .01$, *** $p < .001$.

상호작용 불안, $\beta = -.18, p < .001$, 수행불안, $\beta = -.13, p < .001$, 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유의하긴 하였으나 1단계에서 나타난 효과보다 감소되었다. 따라서 애정적 양육태도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불안과의 각각의 관계에서 자기분화는 부분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적인 설명력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는 11%에서 46%로, 수행불안에는 8%에서 50%로 크게 증가하였고 Bootstrapping 기법 적용 결과, 95% 신뢰구간 CI 범주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위의 두 경로 모두에서 자기분화의 부분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95% CI = $-.2031 \sim -.0920$, 수행불안 95% CI = $-.2266 \sim -.1063$.

거부적 양육태도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1단계에서 거부적 양육태도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 $\beta = .20, p < .001$,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 $\beta = .28, p < .001$, 은 정적으로 유의하였고, 2단계에서 거부적 양육태도가 자기분화에 미치는 영향, $\beta = -.24, p < .001$, 은 부적적으로 유의하였다. 3, 4단계에서 독립변인으로 거부적 양육태도와 자기분화를 동시에 투입한 결과, 자기분화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 $\beta = -.88, p < .001$,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 $\beta = -.96, p < .001$, 은 유의하였으나, 자기분화를 통제한 상태에서 거부적 양육태도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 $\beta = .06, p > .05$, 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반면,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 $\beta = .18, p < .001$, 은 여전히 유의하긴 하였으나 1단계에서 나타난 효과보다 감소되었다. 따라서 거부적 양육태도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의 관계에서 자기분화는 완전 매개효과를, 거부적 양육태도와 수행불안과의 관계에서 자기분화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간접효과의 설명력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서는 4%에서 43%로, 수행불안에서는 8%에서 50%로 크게 증가하였다. Bootstrapping 기법 적용결과,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95% CI = $.1357 \sim .3245$, 수행불안 95% CI = $.1517 \sim .3530$.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불안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분화는 모두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1단계에서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beta = .16, p < .001$,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 $\beta = .21, p < .001$, 은 정적으로 유의하였고, 2단계에서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자기분화에 미치는 영향, $\beta = -.27, p < .001$, 은 부적적으로 유의하였다. 3, 4단계에서 독립변인으로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자기분화를 동시에 투입한 결과,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자기분화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 $\beta = -.90, p < .001$,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 $\beta = -1.00, p < .001$, 은 부적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자기분화를 통제한 상태에서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 $\beta = -.02, p > .05$,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 $\beta = .03, p > .05$, 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즉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불안과의 각각의 관계에서 자기분화는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내었고 Bootstrapping 기법 적용 결과 완전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95% CI = $.1439 \sim .3149$, 수행불안

95% CI = .1623~.3459.

부모양육 태도가 자기분화에 미치는 영향 및 자기분화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분화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반응에는 과보호, $\beta = -.22, p < .001$, 자기입장에는 애정, $\beta = .37, p < .001$, 정서적 단절에는 거부, $\beta = -.28, p < .001$, 타인융합에는 과보호적 양육태도, $\beta = -.24, p < .001$, 가 각각 상대적 기여도가 높은 주요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으나, 그 설명력은 5%~12%로 높지 않았다. 자기분화 전체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은 과보호적 양육태도, $\beta = -.25, p < .001$, 로 설명력은 7%로 나타났으며 애정적

양육태도, $\beta = .22, p < .001$, 가 5%를 더하여도 두 예측 변인의 자기분화 전체에 대한 설명력은 12%에 그쳤다. 반면 자기분화의 하위 요인 중 사회불안 전체의 예측변인으로 나타난 정서적 단절, $\beta = -.54, p < .001$, 자기입장, $\beta = -.24, p < .001$, 타인융합, $\beta = -.25, p < .001$, 은 세 변인이 합하여 사회불안의 전체 변량 가운데 총 59%를 설명하였다. 특히나 정서적 단절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beta = -.48, p < .001$, 수행불안, $\beta = -.50, p < .001$, 사회불안 전체, $\beta = -.54, p < .001$, 각각에 대하여 상대적 기여도가 가장 높은 예측 변인으로 각각 38%, 41%, 46%의 높은 설명력을 보여 주었다.

표 3.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분화에 미치는 영향 및 자기분화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N=480)

종속변인	예측변인	SE	β	t	R ²	ΔR^2	F
정서적 반응	과보호	0.06	-0.22	-4.95***	0.05	0.05	16.81
	애정	0.05	0.12	2.70***	0.07	0.01	
자기입장	애정	0.04	0.37	7.77***	0.10	0.10	30.58
	거부	0.06	0.12	2.49*	0.11	0.01	
정서적 단절	거부	0.07	-0.28	-5.94***	0.12	0.12	39.39
	애정	0.05	0.16	3.41***	0.14	0.02	
타인융합	과보호	0.05	-0.24	-5.34***	0.06	0.06	28.48
자기분화전체	과보호	0.04	-0.25	-5.87***	0.07	0.07	32.05
	애정	0.03	0.22	5.07***	0.12	0.05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정서단절	0.04	-0.48	-12.14***	0.38	0.38	109.66
	자기입장	0.04	-0.23	-6.79***	0.45	0.07	
	타인융합	0.05	-0.12	-2.59**	0.48	0.03	
수행불안	정서적 반응	0.05	-0.11	-2.10*	0.48	0.00	179.13
	정서단절	0.04	-0.50	-14.16***	0.41	0.41	
	타인융합	0.04	-0.27	-7.50***	0.48	0.07	
사회불안전체	자기입장	0.04	-0.22	-6.96***	0.53	0.05	223.90
	정서단절	0.03	-0.54	-16.44***	0.46	0.46	
	자기입장	0.03	-0.24	-8.26***	0.54	0.08	
	타인융합	0.03	-0.25	-7.39***	0.59	0.05	

* $p < .05$, ** $p < .01$, *** $p < .0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불안, 자기분화의 관계를 밝히고,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불안과의 각각의 관계에서 자기분화가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추가 분석을 통하여 사회불안에 대한 자기분화의 하위요인별 상대적 기여도와 자기분화의 각 하위 요인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의 상대적 기여도를 파악하였다. 요약된 연구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불안 전체, 자기분화 전체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하였다. 애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긍정적인 성향과 자신감을 심어주어 대인관계에서 비롯되는 자녀의 문제를 감소시켜(곽윤영, 2008; 권보연, 1999) 자녀의 사회 불안을 낮출 것이며, 거부적인 부모는 자녀들에게 반사회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형성시키기 쉬워 사회적응을 방해하고(조유진, 2012),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는 자녀를 사회적 상황에 제한적으로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사회불안을 강화할 수 있음(이경은, 하은혜, 2011)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모가 긍정적, 애정적, 온정적, 수용적일 때 자녀의 자기분화가 잘 이루어지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 거부적이고 제재가 많을 때 자기분화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권소희, 2014; 김진영, 2011; 이미경, 2007)는 다수의 선행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한편으로 본 연구에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자기분화의 하위 요인 중 타인융합과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가족건강성이 자기분화의 하위요인 중 타인융합

과만 상관을 보이지 않은 결과(임주영, 2013)와 같은 맥락이다. 거부적,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공통적으로 자기입장과는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아서, 모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느끼는 자녀일수록 자신의 신념, 생활 원칙 등을 더 고수하려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결과(장경문, 2014)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와 유사하게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기입장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유혜경, 2004)도 있고, 부모의 어떠한 양육태도도 자기분화의 자기입장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은 연구(권소희, 2014; 박경환, 2011)도 있어서 추가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자기분화와 사회불안의 상관관계에서는 모든 하위 요인에서 각각 부적인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서, 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대학생은 대인관계에서 예민하고 불안이 높으며(이은희, 2011), 사회적 불안과 신체적 증상이 높다(Peleg-Popko, 2002)는 선행 연구를 뒷받침하였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애정, 거부, 과보호)가 사회불안(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불안)으로 가는 경로 모두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자기분화는 애정적 양육태도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불안 각각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내었고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불안 각각의 관계에서는 완전 매개효과를 보였다. 또한 자기분화는 거부적 양육태도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의 관계에서는 완전 매개를 거부적 양육태도와 수행불안과의 관계에서는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애정적 환경에서 성장한 자녀는 사회불안에 노

출될 위험이 적다는 선행연구(김무경 외, 2005; 김유정, 2015)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애정적 양육 태도는 사회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자기분화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다. 이는 애정적인 양육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결과이다.

반면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에서는 자기분화가 두 불안 모두에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내어서 과보호적 양육환경에서 성장했다고 지각하는 자녀는 자기분화를 통해서만 사회불안에 노출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사회불안에 매개요인을 통한 간접효과만 보인다는 선행 연구(오경자, 양윤란, 2003; 최미미, 조용래, 2008; 허재홍, 2006)와 같은 맥락이다.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애정적인 것 같으나 부모가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고 간섭하는 양상으로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방해하여 자녀의 불안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김혜영, 2000; 서경현 외, 2013). 그러나 성장한 자녀에게는 부모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환경이 주어지고,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하여 부모나 가족 외에도 친구 관계가 정서적 후원자로 점점 더 중요해지므로(Furman & Buhrmester, 1992) 과보호적 양육의 효과는 다른 매개변인들로 인하여 중재되기가 훨씬 쉬워질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정서적 지지관계가 부모로부터 다른 대상으로 이동하는 시기에 가족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는 자기분화가 잘 이루어진다면 부모에 대한 의존이 축소될 수 있어서 자기분화가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추가 분석에서 자기분화를 방해하는 주요 예측변인인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자기분화의 하위요인 중 사회불안을 가장 잘 예측하는 정서적

단절은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는 대학생의 사회불안을 다른 불안 장애와는 다른 시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과잉보호가 자녀의 우울이나 불안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김혜영, 2000; 윤성민, 2014) 사회불안에도 영향을 미친다(장효주, 2009)는 보고들이 있으나,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은 우울감이나 다른 정신증적 증상을 통제하고도 자살에 대한 위험도가 높았고(Buckner, Lemke, Jeffries, & Shah, 2017), Klint, Devon과 Lynn (2017)도 사회불안 장애는 독립적인 특징이 있어서 사회불안이 고독, 우울과 유사한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기존의 이론적 관점을 구체적으로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사회불안이 일반적인 불안이나 심리적 증상 등과는 다르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내포한다.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는 완전매개, 수행불안에는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어서 두 불안의 차별적 특성을 상기시킨다.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란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은 보이지 않고 자녀의 행동과 반응을 평가하고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인 처벌을 가하면서 복종을 요하는 권위적, 독재적이며 반복적인 요구를 가하는 양육태도이다(김신정, 김영희, 2007).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자녀는 새로운 자극에 대해 두려움이나 불안을 갖게 되고(Symonds, 1949), 자기통제력이 저하되어(Baumrind, 1991) 다른 사람에게 주시 받고 평가받는 낮은 환경에서 무언가를 수행할 때 신체적인 증상이 심화되고, 일반적인 압박감과 불안을 더 과장되게 느낄 수 있다(Schaefer, 1965). 또한 이들은 자신의 수행에 대하여 관심이나 지지보다는 처벌이나 무시의 경험

에 익숙해 있어서 자신의 수행에 자신감이 없고 자신의 수행을 평가 절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처럼 거부적 부모의 양육은 자녀가 일반적으로 평가 받는 위치에 있을 때 훨씬 더 큰 위협인자로 작용하여 수행불안에서는 여전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거부적 환경에서 성장한 자녀는 분노성향과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여 적대적 행동을 많이 보이므로(서경현 외, 2013; 한동헌, 2012) 상호작용 상황에서도 문제를 초래 할 수 있지만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불안의 정도가 달라지는 양 방향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상호작용이 증가할수록 불안수준이 낮아지기도 하여(정유선, 권정혜, 2006) 타인의 반응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면서 자기입장을 분명히 유지할 수 있게 자기분화 수준이 증진된다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서는 부모의 거부적 양육의 영향이 충분히 상쇄될 수도 있다는 결과이다. 한편으로 추가 분석에서 사회불안의 주 예측인자인 정서적 단절에 거부적 양육태도가 가장 기여도가 높다는 결과는 주시할 만하다. 거부적 양육환경에서 성장한 자녀는 부모에 대한 적대감과 공격적, 반항적 태도를 지니게 되어(김신정, 김영희, 2007), 자기의 가족과 정서적으로 쉽게 단절하는 경향이 있다(Framo, 1984). 정서적 단절을 가족과의 분화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자녀는 부모를 거부하면서도 사실은 부모와 여전히 묶여 있는 상태로(Bowen, 1976) 실제로는 밀착을 필요로 하면서도 과민하게 기피하려 하는 경향을 갖게 되어 자신을 고립시키는 증상을 보인다(강소라, 박혜인, 2001). 정서적 단절의 경향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고(나보영, 2008; 우수희 외, 2012; 황영훈, 박

은영, 2003), 대인관계에서 독단적, 권위적, 공격적, 반항적이고 불평과 의심이 많은 성향을 보여서(남연희, 2008) 타인으로 부터의 거부를 조장할 수도 있다. 즉 정서적 단절의 경향은 자의, 타의에 의하여 사회불안의 행동적 특징인 회피에 기여하여 이중적으로 사회불안에 노출될 위험을 가중시킨다. 한편으로 대부분의 연구 결과처럼 본 연구에서도 자녀의 불안에 애정적 양육의 중요성이 밝혀졌지만, 부모의 돌봄이나 애정이 한국 청소년의 사회불안에는 의미 있는 작용을 하지 못한다는 결과(서경현, 2012; 이경은, 하은혜, 2011)도 있어서 사회불안의 위협인자로 부모의 거부수준과 자녀의 정서적 단절 수준의 연합 또한 간과할 수 없겠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불안의 각각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는 모두 유의하였고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효과의 설명력은 직접효과에 비해 눈에 띄게 상승하였다. 또한 자기분화의 직접, 간접 효과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비하여 수행불안에서 일관적으로 높게 나타나서 수행불안을 단독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분화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는 자기분화가 낮은 사람은 낮은 환경을 회피하고 신체적 증상을 겪을 확률이 높고(Peleg-Popko, 2002), 시험불안이 높다(Peleg et al., 2016)는 연구결과와 상통한다. 또한 자기분화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불안 전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59%라는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어서 대학생에게 특화된 자기분화 증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사실상 사회불안과 관련된 이론들은 사회불안의 치료에 있어서 인지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에 많은 연구

자들이 사회불안의 인지적 특징을 밝히는데 관심을 가져왔다(Clark & Mcmanus, 2002; Hofmann, 2005; 강지혜, 2011에서 재인용). 그러나 사회불안에 집단이 다른 정서장애 집단에 비하여 정서 지능 수준이 낮으며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에 손상이 있다(Karen et al., 2013)는 연구결과가 있어서 정서에 대한 개입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사실상 정서, 감정, 지적 체계는 상호적인 관계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Kerr & Bowen, 1988). 이에 어느 한쪽을 위해 다른 한쪽을 희생하지 않고 인지와 정서의 조화로운 통합과 균형을 강조하는 자기분화 증진은 사회불안 완화에 유용한 기제가 될 것이다. 즉 대학생에게 정서적-인지적 기능의 효과적인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 표현하도록 돕는 것은 그들의 심리적 에너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 동시에 타인과 적당한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관계의 친밀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돕는 것은 성장과정 중에 겪은 부정적인 관계에 대한 새로운 지각과 대처 방법을 형성시키고 사회불안에 노출될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주요 전략이 될 수 있다. 특히나 정서적 단절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인자임을 감안할 때 모든 치료에서 중시되는 치료자와 내담자와의 관계형성 형태는 사회불안을 겪는 내담자에게 하나의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치료 상황에서 내담자의 치료자로 향한 의존을 조절하면서도 지나치게 거리를 두지 않도록 도와 친밀한 관계 유지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자기분화의 한 방법으로 내담자의 사회불안 완화에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또한 성장한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기분화에 의하여 상쇄되기는 하지만, 부모의 정서조절 기능이 가족 내에 축적되어 자녀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Asbrand, Svaldi, Krämer, Breuninger, & Tuschen-Caffier, 2016) 특히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등의 일반화된 사회불안은 어린 시절에 조기 발병하거나 가족이나 기질의 영향을 받기가 쉬워서(Nagata et al., 2015) 부모양육에 대한 자녀의 지각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배경으로서 간과할 수 없다. Bowen은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과잉적절-부적절, 결단력-비 결단력, 지배적-수동적 등의 가족 관계의 쌍방성을 주시하였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의 어느 누군가가 지나치게 적절하게 행동하고 모든 것에 결단을 내리고 지배적인 성향을 보인다면 다른 구성원은 반대적인 성향에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정서적 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Kerr & Bowen, 1988, 2005). 즉 한 가족의 기능이 너무 저하되면 다른 구성원의 기능은 지나치게 높아지고 지나치게 높은 기능을 가진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기능을 더욱 저하시킨다. 이는 불안이 높은 가족 내의 부모-자녀 관계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호작용으로 부모가 지나치게 강압적이거나 지배적일 때, 지나친 간섭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자녀는 정서적으로 부모에게 속박되고 부모 또한 자녀에게 더욱 밀착하게 된다. 결국 쌍방의 자기분화는 힘들어지고 불안의 수위는 점점 더 올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모의 자기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의 사회불안 수준이 높다(Peleg, 2005)는 연구 결과도 있다. 따라서 부모의 자기분화 증진을 위한 부모 교육은 자녀의 자기분화 증진을 촉구 할 수 있는 주요 전략으로 자녀의 사회불안을 예방하고 자녀

가 사회불안을 겪는다 하더라도 극복 가능한 힘의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자기분화의 직접, 간접 효과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비하여 수행불안에서 일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는 자기분화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불안에 다른 매개효과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불안의 특성에 따라 예측 변인이 달라질 수도 있고 예측 변인의 영향력의 크기에 차이가 날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두 불안 유형을 분리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성을 제시한다. 특히 수행불안은 청소년기 이후에 외상의 경험에 의하여 뒤늦게 발병되거나 일시적인 경향을 보일 수도 있어서(Nagata et al., 2015) 각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계획과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 자료는 사회불안 완화에 더 빠르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에 따른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불안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변인들을 동시에 상정하지 않고 모형을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설계 특성상 변인들 간의 인과 관계를 담보할 수 없고 변인들을 동시에 상정했을 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독립변인 효과의 가능성 또한 배제 할 수 없다. 향후에는 다른 방법의 분석을 통하여 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최고의 모형을 추출하여 심도 있는 고찰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더불어 자기분화와 함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다양한 변인들을 동시에 상정하여 실제로 어떠한 변인이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더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 볼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사회불안의 주요 예측인자임을 확인하였다.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임상 집단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양육태도로 부모의 거부와 사회불안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치료 상황에 보다 실제적인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 결과를 타당화해 보고 자기분화의 효과검증을 위한 질적 연구가 이루어지길 제안해 본다.

참 고 문 헌

- 강경훈 (2009). 대학생의 자아분화, 자아 존중감과 취업 스트레스 간의 관계. 인제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강소라, 박혜인 (2001). 대학생의 자아분화 수준과 가족 건강도 지각 관련 변인 연구: 계명대학교 생활 과학 연구소, 27(2001), 19-37.
- 강정현 (2012). 청소년의 자아분화가 자기통제력, 대인 관계 및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강지혜 (2011).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역기능적 신념 및 사회 불안의 관계.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곽윤영 (2008). 부모의 양육태도 및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도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보연 (1999). 대학 신입생의 대인관계문제 유형과 그들이 지각한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 및 양육태도와 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소희 (2014).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의 관계: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두현 (2015). 수용전념치료(ACT) 사회 공포증 경향이 있는 대학생의 사회불안, 거절 민감성 및 경험 회피에 미치는 효과.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무경, 오윤희, 오강섭 (2005).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이 사회 불안 증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3), 599-614.
- 김민선, 서영석 (2009).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525-545.
- 김상욱 (2010). 대학생의 자아분화,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간의 관계: 우울, 불안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신정, 김영희 (2007).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고찰,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0(2), 172-181.
- 김영일 (2006). 성인애착과 결혼만족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조절효과.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유정 (2015).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 태도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 불일치의 매개효과. 경성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택, 심혜숙 (1993). 자아분화 개념을 통한 Bowen의 정신역동 적 가족치료의 특징.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1), 31-45.
- 김진영 (2011).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 태도와 자아분화 및 자아 존중 감의 관계: 기독교인 대학생과 비기독교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향숙 (2001). 사회공포증 하위유형의 기억 편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민 (2008).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와 수치심 및 사회불안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영 (2000).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숙 (2012).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이 대인간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나보영 (2008).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자기분화 및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남연희 (2008).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청소년 대인관계 성향 간의 관계분석.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혜신 (2001). 또래의 괴롭힘이 청소년기 사회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경환 (2011). 직장인의 지각된 부모 양육 태도와 자아분화가 핵심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1), 243-264.
- 박선영 (2003). 사회불안 유발상황의 구분 및 사회불안 하위 유형의 차별적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은 (2015).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애착이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희룡 (2015). 대학생 성인아이 특성과 정서인식 명확성, 자기분화, 스트레스 대처방식, 커플 관계 탄력성의 관계. 한남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배성민 (2012). 설문조사의 정확성에 대한 온, 오프라인의 비교.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경현 (2012). 초기 청소년기에 있는 아동의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 및 부모 간 양육태도 불일치와 사회불안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9(1), 207-226.
- 서경현, 신현진, 양승애 (2013). 거부적 부모 양육 태도와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사회 불안간의 관계: 냉소적 적대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4), 837-851.
- 신혜린 (2012). 사회적 불안 상황을 중심으로 한 사회불안 하위 유형의 불안 반응 차이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오경자, 양윤란 (2003).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I: 행동 억제기질, 부모 양육 태도 및 외상 경험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3), 557-576.
- 우수희, 송근혜, 조규관 (2012). 대학생의 자기분화가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문

- 제연구, 30(4), 59-80.
- 유혜경 (2004). 부모 양육 태도 및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과 남자 중학생 자아분화 수준과의 관계. 호서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선미 (2010). 자아분화수준이 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성민 (2014). 성인기 자녀가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자아분화와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의 매개 효과.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9(4), 757-779.
- 윤성민, 신희천 (2007). 내현 적 자기애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967-982.
- 윤은주 (2012).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와 완벽주의 성향, 사회불안의 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향숙, 황윤미, 김덕범, 장성화 (2011). 대학생의 자아분화, 스트레스 대처방식, 정신건강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태평양교육학회*, 1-25.
- 이경은, 하은혜 (2011). 청소년 사회불안에 대한 취약성 - 스트레스 모델: 대인불안과 수행불안을 중심으로. *인지행동치료*, 19(4), 757-779.
- 이미경 (200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과 자기분화 및 내외 통제 성향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서정 (2013). 대학생의 자기분화와 대인관계,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건양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희 (2011). 대학생의 자기분화 수준과 심리적 부적응: 자기 통제력과 문제 해결 방식의 역할. *청소년학연구*, 18(12), 157-180.
- 임주영 (2013). 가족건강성 및 자아분화가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경문 (2014). 청소년의 자아분화수준, 부모통제에 대한 지각과 심리 및 행동문제의 관계: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2), 845-854.
- 장효주 (2009). 청소년의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모 양육태도의 중재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유선, 권정혜 (2006). 피드백 유형이 사회공포증 집단의 예상불안과 수행에 미치는 영향: 이성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2), 489-504.
- 조나영 (2014). 사회 지향성과 자율 지향성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적응 적 자기초점 주의의 매개 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유진 (2012). 부모 양육 태도에 따른 군집과 아동의 개인내적 특성과의 관계-개인내적 특성 중 자아 존중 감, 내외통제 소재, 자기 통제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권리학회*, 16(2), 289-307.
- 조한익 (2011).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 태도와 인터넷 이용 동기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기 통제력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3(4), 269-287.
- 최미미, 조용래 (2008).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과 행동억제가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신념과 정서 조절 곤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8(1), 576-577.
- 한국인터넷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 (2016). 2015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결과. http://search.msit.go.kr/RSA/front_new/Search.jsp에서 2016. 8. 10 인출.
- 한동현 (2012). 부모의 양육태도와 공격성과의 관계: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상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상연 (2015).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절하와 사회불안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허재홍 (2005b). 대학시기 사회불안 발생의 심리적 기제: 행동 억제 기질, 부모양육태도 및 외상경험의 영향. *학생생활 연구*, 17, 71-8.
- 허재홍 (2005). 사회불안 치료기제 모형 검증: 자동적 신체반응 체험과 자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허재홍 (2006). 부모 양육태도, 완벽주의, 외상 경험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 심리치료, 18(3), 593-611.
- 황영훈, 박은영 (2003). 애착 이론과 자아분화 이론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 *가족과가족치료*, 11(1), 155-177.
- 홍원표 (2013).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와 자아 분화가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lden, L. E., Taylor, C. T., Mellings, T. M. J. B. & Lapsa, J. M. (2008). Social anxiety and the interpretation of positive social event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2(4), 577-590.
- APA (2015). DSM-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 5판. (대표 역자 권준수).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13년에 출판)
- Archer, S. L. & Waterman, A. S. (1988). Psychological individualism: Gender difference of gender neutrality. *Human Development*, 31, 65-81.
- Arnett, J. J. (2001). Conceptions of the transition to adulthood: Perspectives from adolescence to midlife.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8(2), 133-143.
- Arrindell, W. A., Emmelkamp, P. M. G., Monsma, A., & Brilman, E. (1983). The role of perceived parental rearing practices in the etiology of phobic disorders: A controlled stud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3(2), 183-187.
- Arrindell, W. A., Kwee, M. G. T., Methorst, G. J., Van der Ende, J., Pol, E., & Moritz, B. J. (1989).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s of agoraphobic and socially phobic in-patient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5, 526-535.
- Arrindell, W. A., & Engebretsen, A. A. (2000). Convergent validity of the short-EMBU and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PBI): Dutch findings.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7(4), 262-266.
- Asbrand, J., Svaldi, J., Krämer, M., Breuninger, C., & Tuschen-Caffier, B. (2016). Familial Accumulation of Social Anxiety Symptoms and Maladaptive Emotion Regulation. *PLoS ONE*, 11(4), 1-14.
- Baumrind, D. (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abus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 56-95.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owen, M. (1976).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Guerin. P. M. Jr. (Ed). Family Therapy. New York: Gardner Press.
- Bowen, M. (1982).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ckson Aronson.
- Bruce, S. E., Yonkers, K. A., Otto, M. W., Eisen, J. L., Weisberg, R. B., Pagano, M., ... , Keller, M. B. (2005). Influence of psychiatric comorbidity on recovery and on recurrence in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social phobia, and panic disorder: A 12-year prospective stud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2(6), 1179-1187.
- Bruch, M. A., Heimberg, R. G., Berger, P., & Collins, T. M. (1989). Social Phobia and perceptions of early parental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Anxiety Research*, 2, 57-65.
- Buckner, J. D., Lemke, A. W., Jeffries, E. R., & Shah, S. M. (2017). Social anxiety and suicidal ideation: Test of the utility of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e.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45, 60-63.
- Clark, J. V., & Arkowitz, H. (1975). Social anxiety and self-evaluation of interpersonal performance. *Psychological Report*, 36, 211-221.
- DePaulo, B. M., Epstein, J. A., & LeMay, C. S. (1990). Responses of the socially anxious to the prospect of interpersonal eval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58(4), 623-640.

- Essau, C. A., & Conradt, J. (1999). Frequency and comorbidity of social phobia and social fears in adolescent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7(9), 831-843.
- Friedman, E. (1991). Bowen theory and therapy. In A. S. Gurman & D. P. Kniskern (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 (Vol. II). by Alan S. Gurman and David P. Kniskern. New York: Brunner/Mazel, INC.
- Framo, J. L. (1984). *Foundation of behavior research*. New York: Holt, Rinehart Qwinston.
- Furman, W., & Buhrmester, D. (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1), 103 - 115.
- Hayes, A. F. (2014). *SPSS, SAS, Mplus Macros and codes*. <http://www.afhayes.com/spss-sas-and-mplus-macros-and-code.html>에서 2016.1.10. 인출.
- Heimberg, R. G., & Holt, C. S. (1993). The issue of subtypes in the diagnosis of social phobia.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7, 249-260.
- Hook, J. N., Valentiner, D. P., & Connelly, J. (2013). Performance and interaction anxiety: specific relationships with other-and self-evaluation concerns. *Anxiety, Stress, & Coping*, 26(2), 203-216.
- Karen, N., Luke, A., Downe, Y., Karen, H., Issac, S., & Con, S. (2013). Associations Between Social Anxie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Within Clinically Depressed Patients. *Psychiatric Quarterly*, 84(4), 513-521.
- Kerr, M. E., & Bowen, M. (1988). *Family Evaluation*. NY: Norton 1988.
- Kerr, M. E., & Bowen, M. (2005). 보웬의 가족치료 이론. (남순현, 전영주, 황영훈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88에 출판).
- Klint, F., Devon, P., & Lynn, E. A. (2017). Are Social Anxiety and Loneliness Best Conceptualized as a Unitary Trait?.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6(4), 335-345
- La Greca, A. M., & Stone, W. L. (1993).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Revised: Factor structure and concurrent Validit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2, 17- 27.
- Last, C. G., Hersen, M., Kazdin, A. E., Orvaschel, H., & Perrin, S. (1991). Anxiety disorders in children and their familie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8, 928- 934.
- Liebowitz, M. R., (1987). Social phobia. *Modern Problems of Pharmacopsychiatry*, 22, 141-173.
- Mattick, R. P., & Clarke, J. C. (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ocial phobia scrutiny fear and social.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4), 455-470.
- Nagata, T., Suzuki, F., & Teo, A. R. (2015). Generalized social anxiety disorder: A still-neglected anxiety disorder 3 decades since Liebowitz's review. *Psychiatry & Clinical Neurosciences*, 69(12), 724-740.
- Peleg, O. (2005). The Relation Between Differentiation and Social Anxiety: What Can Be Learned from Students and Their Parent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 167 - 183
- Peleg, O., Deutch, C., & Dan, O. (2016). Test anxiety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and its relation to perceived parental academic expectations and differentiation of self. *Learning & Individual Differences*, 49, 428-436.
- Peleg-Popko, O. (2002). Bowen theory: A study of differentiation of self, social anxiety, and physiological symptom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4, 355-369.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AMO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 879-891.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7-424.
- Schlenker, B. R., & Leary, M. R. (1982). Social anxiety and self-presentation: a conceptualization and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93*(3), 641-669.
- Schneier, F. R., Johnson, J., Hornig, C. D., Liebowitz, M. R., & Weissman, M. M. (1992). Social phobia: Comorbidity and morbidity in an epidemiologic samp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9*(4), 282-288.
- Skowron, E. A., & Friedlander, M. L. (1998). The 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235-246.
- Skowron, E. A., & Schmitt, T. A. (2003). Assessing interpersonal fusio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new DSI fusion with others sub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9*(2), 209-222.
- Stopa, L., & Clark, D. M. (1993). Cognitive processes in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1*(3), 255-267.
- Symonds, P. M.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ew York: Bureau of Publications,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Vernberg, E. M., Abwender, D. A., Ewell, K. K., & Beery, S. H. (1992). Social anxiety and peer relationships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 189-196.
- Wallace, S. T., & Alden, L. E. (1995). Social anxiety and standard setting following social success or failur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6), 613-631.

원고접수일: 2017년 3월 7일

논문심사일: 2017년 3월 21일

게재결정일: 2017년 8월 2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7. Vol. 22, No. 3, 645 - 667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and Social Anxiety in university student : Focusing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Eun-jung Kim Hye-rhan Lee

Department of Psychotherapy and Cognitive Therapy
The Graduate School of Gachon University of Professional Therap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between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and social anxiety in university student.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480 students in university located in South Korea. The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were a parenting attitude scale(EMBU-short), two social anxiety scales(SIAS and SPS) and a Self-differentiation scale(DSI-R).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parenting attitudes, self-differentiation, and social anxiety. Second, self-differentiation was found to completely mediate the relations between each subtypes of parenting attitude and both of social interaction anxiety and performance anxiety. And according to the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emotional-cutoff' had the greatest effect on social anxiety among the subsidiary variables of self-differentiation and the rejective type of parenting attitude was the most effective predictable variable of 'emotional-cutoff'.

Keywords: parenting attitudes, self-differentiation, social anxiety, social interaction anxiety, performance anxiety